

(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고린도후서 3:6, 17~18.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10~15분)

1847년 2월에 브리검 영은 자신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방문하는 꿈을 꾸었다고 했다. 브리검 영은 조셉 스미스와 함께 있고 싶다고 그에게 말하였으나, 선지자는 그에게 잠시 동안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였다. 브리검 영은 형제들에게 전하여줄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에게 물었다. 브리검 영의 일지에서 발췌한 **다음 문장을 읽는다.** 기울어진 글자로 된 단어는 곰곰이 생각해본다.

"조셉이 우리에게 나아와서 매우 진지하지만 즐거운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겸손하고 충실하여 항상 주님의 영을 간직[하라고] ... 말하십시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 41쪽)

조셉이 브리검 영에게 무엇을 말하였는지를 생각해 본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읽고** 도움을 받는다. 답을 찾게 되면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영을 유지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조셉 스미스가 꿈을 통해서 브리검 영에게 말하였던 내용을 **계속해서 읽는다.**

"형제들에게 계속해서 확신에 대한 저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신이 저들에게 올 때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이 준비를 갖추 수 있게 하라고 말하십시오. 저들은 다른 모든 영과 주님의 영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저들의 영혼에 화평과 기쁨을 속삭일 것입니다. 그는 저들의 마음으로부터 악의, 증오, 투쟁, 모든 악을 제거할 것이며 저들의 모든 욕망은 선을 행하는 것과 의를 낳으며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될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주님의 영을 따르려면 옳은 길로 가라고 말하십시오. 반드시 사람들에게 성령을 지니라고 말하십시오" (브리검 영의 역사 원고, 1846~1847년, 엘든 제이 왓슨 편집 [1971년], 529~530쪽; 성도의 빛, 1979년 10월호, 108쪽)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다시 살펴본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 여기에 속하는 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율법의 정신에 따라 생활할 때 오는 두 가지 축복을 찾아보면서 **고린도후서 3장 17~18절을** 읽는다. 영에 따라 생활할 때 개인적으로 받게 되는 더 큰 축복에 대해 생각한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의 다음 말씀을 나눔으로써 끝맺는다.

"영은 이 영광스러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에즈라 태프트 벤슨의 가르침, 198쪽)

고린도후서 6:16~7:1, 8~10.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였음을 아는 것으로부터 오며, 또한 참된 회개로 이끈다. (20~25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리고 세상 근심이라고 노트에 적는다. 이 두 가지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생각해본다. 다음 상황을 상상해 보고 또 그것이 어떤 종류의 근심을 나타내는지를 생각해 본다.

결혼을 위한 성전 추천서 접견에서 한 젊은 자매가 과거에 저질렀던 몇 가지 죄를 감독에게 고백하였다. 그 죄들은 감독이 추천서를 거부해도 충분할 정도의 것으로, 감독은 그녀가 충분히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녀는 굉장히 난처해 하며, 자신은 이미 회개를 하여 오랫동안 그 죄들을 반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결혼식 및 피로연 초대장이 이미 발송되었기 때문에 그녀는 안절부절 못하였다. 그녀는 결혼식 계획이 연기되었을 때 발생하는 의심과 혼란을 자신은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말하였다. 감독은 단순히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죄를 그치는 것이 완전한 회개는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며 그녀에게 참된 회개의 과정을 진심으로 시작하라고 권유하였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이 접견에서 젊은 자매는 이 점에 관하여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이같은 상황에서 감독이 추천서를 보류하는 것이 왜 적절한 것이었는가?

고린도후서 7장 8~10절을 읽는다. 바울은 자신의 먼젓번 서한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회개할 것을 외쳤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의 다음 설명을 읽는다.

"자신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그들의 행동이 그들 자신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슬픔과 비참함을 야기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는 그들의 행동 때문에 붙잡혀서 형벌을 받기 때문에 슬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한 세상적인 느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7:10)"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영의 은사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였음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죄를 모르셨던 구주, 곧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 번민과 고통을 견디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분명하고도 예리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분께서는 온 땀 구멍에서 피를 쏟으셨습니다. 이것은 경전에서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교리와 성약 20:37)이라고 말하고 있는 정신적이며, 또한 영적으로 실제적인 모진 고통인 것입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의 가르침, 72쪽)

다음 질문에 대해 토론한다.

• 사람은 왜 참된 회개로 이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느껴야만 하는가?

• **엘마서 42장 29절을** 읽는다. 엘마는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였는가?

• 단지 죄를 그치는 것만으로는 왜 충분하지 않은가?

다음 말씀을 읽는다.

"회개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야만 한다. ..."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리고 또한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거역하였다는 깊은 가책을 느낄 때에 참된 회개가 따른다. 그 사람은 죄 때문에 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졌음을 후회한다. ... 회개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이하의 어떠한 것도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다" (로버트 이 밀레트, "속죄의 교리: 아담에게 주어진 복음의 계시", 로버트 이 밀레트 및 켄트 피잭슨, 경전 연구, 제2권, 값진 진주 [1985년], 124쪽)

• 우리 자신이 난처하게 될 것이라는 염려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방해가 되는가?

• **야고보서 4장 6절을** 읽는다. 우리 죄에 대해 슬픔을 느끼는 데 교만이 어떻게 방해가 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가까이 데려다 주고 또한 여러분이 회개를 통하여 참된 구원을 얻는 데 도움을 준다.